

#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의 질적 연구 동향 및 향후 과제

임효정<sup>1</sup>, 김민지<sup>2\*</sup>

<sup>1</sup>선문대학교 통합의학과 박사과정, <sup>2</sup>선문대학교 신학과 교수

##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and Future Tasks of Non-Disabled Brothers with Disabilities

Hyo-jong Lim<sup>1</sup>, Min-Ji Kim<sup>2\*</sup>

<sup>1</sup>Ph.D. Candidate, Department of Integrated Medicine, Sunmo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학술지 중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RISS 등 검색사이트를 통해 분석하여 1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후 17편의 논문을 연구 참여자,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연구가 가장 많이 시도되었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20대를 포함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비장애 형제의 출생순위나 성별, 장애 유형 등을 구분하지 않는 연구들이 많아 향후 이를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비장애 형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현상학적 연구를 넘어 이론화를 시도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이론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시도되어야 하며 참여대상의 세분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장애 형제들이 원하는 동질적 집단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비장애 형제자매, 질적 연구, 동향분석, 장애인의 형제, 장애 형제의 경험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trend of the qualitative researches on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s who have sibling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analyzed 17 research articles that either have been published in journals or nominated during the recent ten years, attempting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the research on siblings who have sibling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analyzed 17 research papers examining their participan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topics. The results of the previous literature analysis are the followings. Phenomenological approa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 and normally developing siblings who were in their 20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es most. As most research papers did not consider the normally developing siblings birth order, sex, and types of disabilities, future researches will need to specify thes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s. Researchers have tried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the individuals who have siblings with disabilities,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Future research should go beyond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to developed theories that can affect the government policies, employing various research methods with specified participants. Further, this study has also identified that the individuals who have siblings with disabilities wanted to be identified as a separate cohort that needs to be researched and receive support.

**Key Words** : Non-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Qualitative research, Trend Analysis, a brother of the disabled, Disabled brother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Min-Ji Kim(kjinha@sunmoon.ac.kr)

Received April 15, 2021

Accepted July 20, 2021

Revised June 15, 2021

Published July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반응하는 관계로[1]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건은 당사자 외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형제 관계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생애주기에 따라 관계가 변화된다[2]. 장애아가 있는 가정 역시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물론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3].

특히 우리 사회는 장애아가 있는 가정을 장애 가정으로 통칭하면서 가족 전체를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4]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는 성장과정에서 가정 내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등록 인구수는 약 10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장애 소아청소년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5] 장애 인구는 2017년 총2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6] 이들의 비장애 형제자매 또한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비장애인 가족에 비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기간 또한 길어 비장애 형제의 동거기간과 비율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돌봄은 81.9%가 가족이 담당하고 있으며[7]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돌봄을 담당하지만 점차 비장애형제자매가 담당하게 된다[8]. 또한 장애인 돌봄은 탈시설화되고 지역사회중심재활(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로 변화되면서 국가정책의 방향 역시 장애인의 재가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장애형제의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와 오랜 기간 같이 지내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지만, 상대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8]. 비장애 형제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염려가 장애 형제에게 집중되면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이해하도록 강요받으며 성장한다[9]. 심민경은 이러한 비장애 형제들의 현실을 장애 형제보다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였다[10].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연구 또한,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 중 한 사람, 대개 부모의 경험에 주목하고 이를 연구하였다.[11].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 역시 1990년대까지 장애아의 부모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연구는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장애 형제로 인한 비장애 형제의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차츰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긍정적인 영향과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부터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시도되었다[12].

이후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최복천·김유리가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한 바 있으나[13] 연구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하여 국내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국내 논문은 4편만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비장애 형제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이라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해하고자 했던 17편의 질적 연구를 분석하여 비장애 형제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을 바탕으로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 아동의 성장경험을 정리하여 향후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의 방향과 이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문제

위에서 제기된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질적 연구에 대한 다양한 변인별 분석법(연구 참여자,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등)을 통해 살펴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질적 연구의 동향에서 나타난 비장애형제의 주요 경험은 어떠한가? 이러한 경험이 향후 연구과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문헌을 분석하고자 문헌 연구의 한 방법인 범위연구 방법을 사용하

였다. 범위연구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연구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등)에 대한 수량적 분석과 함께 그 연구영역의 하위 연구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서술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4]

범위연구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연구문제 선정, ②관련 선행연구 검색, ③선행연구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 ④선행연구 정리, ⑤선행연구 분석 결과 요약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섯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문제는 ‘서론’에 제시된바, 범위연구의 두 번째 단계인 관련 선행연구 검색부터 서술하고자 한다.

## 2.2 분석대상 논문검색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들에 대한 질적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질적 연구 문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경험과 심리적인 적응 과정은 시대 및 형제자매가 살아가는 시대적 문화와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기에[15] 최근 10년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0년에서 2019년까지 발표된 질적 연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검색하였다. 검색은 국내 주요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RISS와 DBpia, Google 학술검색 등에 비장애 형제자매로 검색되는 43건 중 질적 연구로 진행된 연구 14건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후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선정 가능성이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되지 않은 연구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논문을 검토한 결과 3건이 추가되어 국내 학술지 중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7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 2.3 자료 분석기준

이 연구는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 관련 국내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아동기 비장애 형제자매에 관한 연구 동향[16]과 장애인 형제에 관한 연구 동향[17] 등의 분석에서 사용한 분석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의 기준을 ①연구대상 ②연구 방법 ③연구 주제로 나누었다. 연구 주제의 경우 각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하위주제 목록을 작성하고 유사한 하위주제를 범주화한 뒤 이를 통해 도출된 하위주제를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 2.4 신뢰도

본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자는 장애인 가족지원 및 비장애 형제자매 연구 관련 전문가 1인과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특히 분석기준 중 ‘연구 주제’의 하위 분석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3가지 분석기준에 대한 연구자 간 신뢰도(일치된 논문 수/분석논문 수×100) 산출 결과 100% 일치도를 보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의 일반적 동향

최근 10년간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와 관련된 질적 논문은 17편으로 꾸준히 해마다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장애 형제자매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여 10년 동안 17편, 즉 연간 1.7편이 게재되어 아직 학문적 관심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3.1.1 연령별 동향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 우선 연령별로 연구를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보면 초등학교 2건, 청소년 1건, 대학생 2건, 20대 2건, 20-30대 3건, 20-40대 2건, 30-60대 4건, 40-50대 1건으로 대학생 및 20대를 포함한 연구가 9건으로 17건 중 52.9%를 차지해 20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study participants by age

Age	Elementary student	Teenager	College student	20s	20to30s	20to40s	30to60s	40to60s	total
Number of studies	2	1	2	2	3	2	4	1	17

우선 초등학교생과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미성년자는 자신의 경험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장애 형제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혼란된 시기이기에 자신의 복잡적이고 양가적인 경험을 종합, 정리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 52.9%가 20대에 집중된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어 20대를 연구 참여자로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동일·이윤희·고혜정[17], 이미숙[18]의 두 연구와 특수교육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구정아·김수현·이숙향[19]의 연구이다.

김동일·이윤희·고혜정[17]은 서울대, 이대 등에 재학 중인 학업성적 우수자를 참여자로 연구를 진행하여 비장애 형제의 적응 경험이 학업성취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정과 촉진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미숙[18]은 사범대에 재학하며 교직을 이수하는 대학생의 경험에 주목하여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자조 모임을 제안하였다. 대학생을 포함하여 특수교육을 전공한 20대를 연구 참여자로 한 구정아·김수현·이숙향[19]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이 특수교육을 전공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들은 비장애 형제자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성장 과정의 경험을 세분화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비장애 형제자매가 성장 과정에서 장애 형제에 대한 과잉 동일시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에[10] 어떠한 경험과 과정이 대학의 전공 또는 직업선택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세분화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형제의 연령별 경험의 차이는 발달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동기의 비장애형제들은 장애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지만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수용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다[12]. 청소년기에는 장애형제의 영향으로 참고 노력하면서 의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나 반대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7]. 성인기 형제들은 장애형제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였다. [10,12,13,20,21,22]. 반면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의 양육부재로 인한 심리적인 외로움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었다[7,10,12,13,20,21,22,23].

### 3.1.2 장애 유형별 동향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의 장애 형제의 장애 종류별로 연구를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장애를 구분하지 않은

연구가 전체 17건 중 8건으로 47%였으며 지적장애가 5건 29.4%를 차지했으며 정신장애가 2건,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가 각 1건이었다.

Table 2. Participant's Disability Siblings Disability Type

Type of disability	No classification	Intellectual disability	Autistic disorder	Developmental disability	Mental disorder	total
Number of studies	8	5	1	1	2	17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지적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우 장애 형제의 장애 유형보다 장애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장애의 여부에 따라서 부양 부담과 돌봄의 부담이 달랐다[20].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모두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기에 가족이 받는 영향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을 연구할 때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47%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장애 유형 중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 형제를 가진 연구 참여자가 많은 이유는 지적장애는 19세 이전에 발현되는 발달장애로 우리나라 교육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90,780명인데 이중 48,747명 즉 53.7%가 지적장애인이다[24].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와 자폐장애 등에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의 비중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경험을 살펴보면, 지체장애보다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형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지체장애는 운동손상에 기인한 장애이지만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정상적인 소통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심리적으로 분노나 단절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유형보다 장애정도가 비장애형제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장애정도는 장애형제의 자립여부와 관여되는 중요 요인으로 비장애형제에게 부담이 커져야 하는 과제로서 심리적 어려움을 과증시키는 것으로 탐구되었다.

### 3.1.3 성별에 따른 동향

연구 참여자의 성별로 구분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녀 구분 없는 연구가 12건으로 70.5%이고 여성인 연구가 4건으로 23.5%, 남성인 연구가 1건(5.8%)이었다.

Table 3. Classification by gender of study participants

gender	male	female	No classification	total
Number of studies	1	4	12	17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중요한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 형제를 돌보고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 책임과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여자 형제가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21].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여자 형제가 남자 형제보다 돌봄을 많이 제공하며 부모 사후에 잠재적인 부양의무자로 인식되고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한다고 하였다[22]. 이러한 연구 경향에 맞추어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에 대한 탐구 또한, 남성보다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한 연구가 많았다. 여성인 비장애자매 및 남매는 장애형제의 돌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으며 장애형제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26].

이에 비해 장애 형제를 부양하고 있는 40-50대 중년 남성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 조영실·양소남[20]의 연구는 유일하게 남성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남성인 비장애 형제는 가족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과 장애 형제를 돌보는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며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 경험은 여성인 비장애 형제의 돌봄 경험과 차이를 나타내 추후 남성 비장애 형제의 경험을 더욱 탐구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3.1.4 출생순서의 동향

연구 참여자의 출생순서에 관한 연구 분류 또한, 질적 연구의 동향을 보여준다. Table 4를 보면 연구 참여자의 출생순서에 따른 연구 분류를 볼 수 있다. 17건의 연구 중 14건(82.3%)은 출생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순위 형제인 경우가 2건(11.7%), 손아래 형제인 경우(5.8%)로 나타났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research by birth order of study participants

Birth order	Elder	younger	No classification	total
Number of studies	2	1	14	17

가정에서 출생순위는 형제 관계에 다양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형제 관계는 성장하면서 순위 형제의 일반적인 권위나 역할이 점점 동생과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지원하는 관계로 변화되지만, 장애 아동의 경우 형제 관계에서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7]. 그러나 동일하게 부양과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처럼 출생순위 또한, 비장애 형제자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을 성별이나 출생순위, 장애 형제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분화해서 연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16]. 이에 부양의 책임을 느끼는 순위 여자 형제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21]와 손아래 형제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장애 형제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연구[4]는 흥미롭다. 다만 그 연구[4]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 과정에서 손아래 형제가 어떠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수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1.5 참여 인원별 동향

다음으로 연구에 참여한 인원을 분류해 보면 Table 5와 같다. 6명이 참여한 연구가 5건(29.4%)로 가장 많고 8명이 참여한 연구가 3건(17.6%)로 다음을 차지했다. 4명인 연구와 9명인 연구가 각 2건(11.7%)이었으며 2명, 3명, 9명, 10명, 11명이 각각 1건을 나타냈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stud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Head count	2	3	4	6	8	9	10	11	total
Number of studies	1	1	2	5	3	2	1	1	17

연구 참여자는 질적 연구의 여러 연구 방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연구 참여자의 숫자가 명문화된 것은 없으나 질적 연구 중 인터뷰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는 연

구의 경우 연구 방법의 특징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구 참여자의 인원 또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므로 1-3명 인 경우가 많고 현상학적 연구는 6-10명 정도인 것이 일반적이며 근거이론은 여러 경험의 맥락적 요인과 중재적 요인 등을 분류하여 이론화시켜야 하기에 15-30명으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최근 10년 동안 진행된 비장애 형제자매에 관한 질적 연구 17건 중 14건이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되었으며 2건은 근거이론, 1건은 생애사 연구로 연구되었기에 12건이 6-10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 3.1.6 연구 방법의 동향

17건의 연구를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해보면 Table 6과 같다. 17건 중 14건(82.3%)이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되었으며 2건(11.7%)은 근거이론, 1건(5.8%)이 생애사 연구로 연구되었다.

Table 6. Classification of research according to research method

Research method		Number of studies
Phenomenology	In-depth Interviews	6
	Giorgi	3
	Colaizzi	2
	Van Kaam	1
	Collective interview	1
	Focus Group	1
Grounded theory		2
Life history		1

질적 연구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의 의미와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구이기에 2008년 이후 시도되는 연구 대부분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가장 많은 연구 방법은 심층 면담이 6건이었으나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Strauss & corbin[28], Merriam의 연속적 비교분석[19], Moustakas[29], Bogdan & Biklen의 연속적 비교법[30], 해석현상학적 방법[13] 등으로 각기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가장 많은 연구 방법은 Giorgi 연구 방법이 3건이었으며 Colaizzi 연구 방법이 2건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 방법도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으며 학자마다 분석의 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탐구하기 위해서 적합한 연구 방법이 더 많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 3.2 연구의 하위 주제별 분석

### 3.2.1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경험

17편의 연구 결과는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경험을 탐구하였다. 공통으로 나타난 심리는 첫째, 장애형제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둘째, 부모와 공동체에 대한 소외감, 셋째, 미래와 이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다.

첫째, 장애형제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를 ‘짜증 나는 존재’, ‘장애아동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긴 알미운 존재’, ‘자신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 ‘미안한 존재’라고 여기며 성장한다[23]. 아동기의 비장애 형제의 경우 ‘소중한 존재’와 ‘창피한 존재’로 장애 형제를 생각하고 있었으며[4] 성인 지적장애인을 부양하는 손위 여자 형제들 역시 장애 형제에 대해서 ‘내겐 너무나 벅찬 짐’과 ‘미안하고 사랑스러운 동생’으로 여기는 양가감정이 나타났다[21].

상호 존재하는 두 감정은 분노와 동정이라는 감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분노와 동정이라는 두 가지 감정은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또한, 장애 형제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 그리고 장애 형제에 대한 사랑이란 양가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으며[31] 중장년기 비장애 형제들 역시 장애 형제에 대해 안쓰러움, 짝한, 가슴이 아픴, 미안함과 원망스러움과 짐스러움이라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2]. 이처럼 아동기부터 중장년 성인기까지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다.

둘째,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공동체에 대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 형제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공동체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33]에서는 지적장애를 둔 비장애인 형제의 심리적 현상에서 비장애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심정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관심받지 못하는 섭섭함’과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움’으로 구분하였다. ‘관심받지 못하는 섭섭함’에는 양육자의 관심을 절실하게 바라면서 장애 형제를 돌봄으로도 인정받고 싶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장애 형제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내포되어 있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움’은 섭섭함으로 인한 외로움으로 마음을 둘 곳이 없었으며 엄마로부터의 소외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었기에 우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 형제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양육 상황에서 장애 형제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주 양육자와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미 장애 형제로 인해 충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장애 형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성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관계는 장애 형제로 인해 충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는 장애 형제에게 자신의 힘겨움을 표현할 수 없었고, 성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관계적 패턴을 벗어나기 어려웠다[34].

셋째, 비장애형제는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였다. 장애 형제들은 일상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목격하면서 위축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빨리 상황을 모면하려는 불안한 감정을 일상에서 느끼며 살아간다[20].

비장애 형제들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장애 형제의 존재 사실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4]. 어릴 적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비장애 형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의 장애를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방어적이고 움츠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관계, 능동적이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우 장애의 원인에 대한 무지와 형제의 장애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나도 같은 장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결혼을 하면 장애아동을 낳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속적인 불안을 느꼈다[31]. 성인기에 이르게 되면 다수의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의 부양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에 지속적인 걱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장애 형제에 대한 부양의 걱정은 17편의 연구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증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 3.2.2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지원요구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들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의 발달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요청하게 된 지원은 첫째, 교육 및 심리지원 등 비장애형제에 관한 지원, 둘째, 부모 및 가족에 관한 지원, 셋째, 복지 및 장애인식 개선 등의 사회적 지원 등으로 크게 범주화해 볼 수 있었다.

첫째,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과 심리적 지원, 동질집단과의 연

대 등을 요청하였다. 비장애 형제들은 어린 시절 형제의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비장애 형제의 내적 심리와 주변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형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장애 형제에게 장애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받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형제들에게 지원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23].

장애에 대한 정보 교육과 함께 심리적 지원 또한 요청하였다.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지원은 삶의 전반에 걸쳐 시기 적절히 지원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4].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를 '감추고 싶은 존재'로 생각하고 친구들이 아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위축감을 느낀다. 혹은 따돌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생각을 부모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며 자신만의 '비밀'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인기의 비장애 형제 역시 장애 형제로 인한 성장 과정을 반추하는 과정이 요청되었다. 류수민·한영주[29]는 성인기의 비장애 형제들은 지내온 삶의 과정의 고통을 반추하고 직면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성인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 형제에 대해 불안, 걱정, 염려, 소외감, 양가감정 등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상담사, 가족상담사 등 전문가의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지원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을 위해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들의 동질적인 지지집단 모임도 요청되었다. 비장애 형제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또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최복천·김유리[13]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의 참여자들은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가지게 되는 불안과 막막함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동질적인 상황에서 비슷하게 느끼는 어려움이나 어려움의 다양한 대처방식을 경험하는 자조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자조 집단은 전 생애에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경험 연구를 통해서 비장애 형제들이 전생애 발달과정에 따라가지는 어려움은 달랐지만, 동질적인 지지집단의 필요성은 전 생

애에 걸쳐 나타났다.

둘째,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가족프로그램이 요청되었다. 가족 차원의 지원으로는 부모의 장애인식, 장애수용 여부, 양육 태도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34].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장애 형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었다.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효과적인 지원의 실행요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30] '가족의 기능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 가족의 기능성이 비장애 형제의 삶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의 기능성 회복에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갈등의 해결 과정,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성이 포함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통해 보다 건강한 양육방식과 갈등의 대처 방법을 지원하고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친밀성을 증진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는 부모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주는 장애 형제에 대한 책임과 기대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부담과 화를 갖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1]. 이처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구성원에게 전해지고 상호연결 되어 있다. 가족의 기능성의 회복성 또한, 가족 구성원과 연결된 것이므로 부모 중 한 구성원의 심리적 건강성의 성장은 다른 구성원에게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형제의 부담과 관련된 복지적 지원과 장애인식개선 등의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장애 형제에 대한 장애 완화 및 부양에 관여된 복지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화'와 '형제는 나의 짐'을 경험한다[32]. 장애 형제에게 갖는 부모화와 짐이라는 부담의 정도가 클수록 비장애 형제는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체념하게 된다.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가 장성해가면서 노년기에 들어선 부모는 장애 자녀가 가정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며 장애 자녀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애 자녀의 미래 삶을 계획하지 않은 채 몸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장애 형제들 역시 미래의 삶을 계획하지 않은 채 형제들이 부양을 책임지게 되는 반복이 이루어진다. 사회적인 복지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 모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심리지원을 통해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 형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인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지게 되면 다시 장애

인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27].

이와 함께 장애 인식의 개선도 요청되었다.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은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어려움과 관계의 형성, 그리고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19]. 비장애 형제는 성장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다름을 이상하게 혹은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시선은 비장애 형제의 소외감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장애와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5]. 진로의 결정은 긍정과 부정을 논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25].

이러한 지원요구는 장애가 있는 비장애 형제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로 부모에 대한 심리지원을 1순위로 우선시하였지만[23] 청소년의 경우 형제의 장애에 대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동질적 지지집단의 지원을 필요한 요소로 중요시하였다[31]. 성인기 형제들의 연구에서는 필요한 지원으로 복지적 지원과 동질적 지지집단을 꼽았다. 청소년기의 동질적 지지집단은 이심전심의 요소로 심리적 위안과 응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성인기의 동질적 지지집단은 이심전심과 정보 교류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로 인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구속되어 살았다[33]는 진술과 장애 형제와 분리, 독립되어서 살고 싶다[30]는 진술도 소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 4. 결론

본 연구는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에 주목하여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비장애 형제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과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질적 연구 동향을 변인별 분석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 동안 17편의 연구논문만 게재되어 장애인의 부모에 관한 연구나 비장애 형제에 관한 양적 연구보다 아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에 치중되어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대상은 2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고 출생순서와 장애정도,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연구가 많아 연구대상을 세분화한 연구가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의 구



체적인 경험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기에 연령, 출생순서, 장애정도, 성별 등을 세분화하여 경험을 탐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통해 향후 연구과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실제 비장애 형제를 위한 정책과 심리지원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보다 세분화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이론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이론은 비장애 형제의 성장 과정의 맥락적 요인과 중재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형제로 살아가는 형제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학교 장년의 상담사, 교사, 복지관에서의 심리지원 정보 등에도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현상학적 이해를 넘어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이론적 접근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비장애 형제들의 질적 연구를 통해 비장애 형제들이 원하는 동질적 집단을 형성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동기부터 경험된 동질적 집단 속에서 서로 이해받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조 집단을 형성할 때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지받을 수 있으며, 자신과 같은 상황의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돕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상호 호환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비장애 형제들의 동질적 집단 형성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이와 관련된 질적 연구 또한 요청된다.

## REFERENCES

- [1] Z. Ali, Q. Fazil, P. Bywaters, L. Wallace & G. Singh. (2001). Disability, ethnicity and childhood: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Disability & Society*, 16(7), 949-967. DOI : 10.1080/09687590120097845
- [2] K. King, D. Alexander & J. Seabi. (2016). Siblings' perceptions of their ADHD-diagnosed sibling's impact on the family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3(9), 910. DOI : 10.3390/ijerph13090910
- [3] R. P. Hastings & H. M. Taunt. (2002). Positive perception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7(2), 116-127. DOI : 10.1352/0895-8017(2002)107(0116:PPIFOC)2.0.CO;2
- [4] Y. J. Jung & H. I. Jeon. (2014). A Literature Review of South Korea's Experimental Research about the Intervention for Supporting Non-Disabled Siblings of Disabl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9(1), 283-301.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www.bokjiro.go.kr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Newsis Updown News
- [7] Y. M. Lee. (2016). The Effects of Stress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 Sibling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0(4), 327-346. DOI : 10.15861/kjse.2016.50.4.327
- [8] Y. I. Kang & H. I. Jeon. (2014). A Study of the Resilience of Children with Siblings with a Physic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9(3), 45-65. DOI : 10.15861/kjse.2014.49.3.45
- [9] G. B. Lim & J. Y. Park. (2011). Effects of a Sibling Support Program Focused on Stress Management on Stress Cop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in Siblings of Students with Severe/Multiple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0(1), 235-256. DOI : 10.18541/ser.2011.02.10.1.235
- [10] M. K. Sim. (2019). *A study on attitude of non-disabled siblings of brothers(or sist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Master dissertation. Pukyong University, Busan.
- [11] H. J. Lim, H. J. Seo, S. H. Bang & B. U. Jeon. (2012). A Research Review of Family Support Progra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6(4), 39-66.
- [12] J. H. Koo & K. I. Han. (2008). The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Life experience of Non-disabled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1(3), 199-218. DOI : 10.20971/kcpmd.2008.51.3.199
- [13] B. C. Choi & Y. R. Kim. (2018). Sibling Relationship and Its Meanings Perceived by Adult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1(2), 159-183. DOI : 10.20971/kcpmd.2018.61.2.159
- [14] H. Arksey & L. O'malley. (2005).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ail Research Methodology*, 8(1), 19-32.
- [15] Y. L. Kim. (2015). Review of Trende and Future Directions in Literature Related to Adult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7(2), 275-298.
- [16] B. H. Kwak. (2017). Trend Analysis in Research on Non-disabled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3(1), 79-109. DOI : 10.31863/jse.2017.08.33.1.79

- [17] D. I. Kim, Y. H. Lee & H. J. Koh. (2014). Exploring Adaptive Experience on High-achieving Non-disabled College Students Living with Disabled Sibling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2), 253-279. DOI : 10.35151/kyci.2014.22.2.011
- [18] M. S. Lee. (2019). Narrative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Sibling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22(2), 29-58. DOI : 10.17318/jae.2019.22.2.002
- [19] J. A. Ku, S. H. Kim & S. H. Lee. (2014). A Qualitative Inquiry on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Non-disabled Special Education Majors Having a Sibling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6(2), 253-283.
- [20] Y. S. Cho & S. N. Yang. (2018). A Study about Experiences of Male Siblings without Disability Who Care for Their Adult Sibling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62, 5-38. DOI : 10.16975/kjfs.2018..62.001
- [21] M. H. Kim & S. JANG. (2012). Lives of Sibling Caregivers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fter the Death of Parents: A Life History Analysis. *Family and Culture*, 24(1), 140-177. DOI : 10.21478/family.24.1.201203.005
- [22] T. Heller & C. K. Arnold. (2010). *Sibling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sychosocial outcomes, relationships, and future planning.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7(1), 16-25. DOI : 10.1111/j.1741-1130.2010.00243.x
- [23] M. S. Lee, H. Y. Kwon & M. A. Lee. (2010). A Study of Perspectives of Sibling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Siblings in an Upp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2(2), 127-148. DOI : 10.21075/kacsn.2010.12.2.127
- [24] Ministry of Education. (2018).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https://kess.kedi.re.kr>
- [25] M. M. Choi & J. Y. Kwon. (2012). Study on the Process and Roles of Sibling Caregiving for People with Chronically Mentally Ill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4), 311-336. DOI : 10.20970/kasw.2012.64.4.013
- [26] H. J. Yang & J. S. Shin. (2015). Lived Experience of Female Sibling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pply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of Analysi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1), 17-49.
- [27] A. L. Begun. (1989). Sibling relationships involving developmentally disabled peopl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3, 566-574.
- [28] S. R. Kang & B. I. Lee. Consideration on Effectiveness of Implementing Component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Asia-Pacific Special Education*, 12(4), 153-185.
- [29] S. M. Ryu & Y. J. Han. (2015). A Qualitative Study on Becoming a Sibling of a Severely Disabled Pers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2), 121-155. DOI : 10.15703/kjc.16.2.201504.121
- [30] M. H. Ro & E. K. Kim. (2018). A Study on Life and Support Needs of the Adult Siblings of People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8(1), 1-33. DOI : 10.33729/kpap.2018.1.1
- [31] J. H. Seol. (2012). Experiences of Non-Disabled Adolescents About Their Sibling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6(4), 91-118.
- [32] B. G. Jeong & Y. M. Sook. (2013). The Middle aged Sibling's Experience of Adult with Mental Disorder.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2, 85-108. DOI : 10.22779/kadw.2013..22.85
- [33] D. H. Kim & J. H. Han. (2016).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of The Non- disabled Siblings With Intellectually Disabled Brothe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5), 357-375. DOI : 10.15703/kjc.17.5.201610.357
- [34] J. H. Yang & S. S. Jeon. (2020). A Study on the Emotional Experience and Support Needs of Non-disabled Adult Sibling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alysi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by Birth Order of Sibling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5(2), 31-60. DOI : 10.15861/kjse.2020.55.2.31

#### 임 효 정(Hyo-jong Lim)

[정회원]



- 2016년 8월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상담심리 (석사)
- 2021년 2월 : 선문대학교 통합의학과 가족상담 (박사수료)
- 관심분야 :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꿈분석
- E-Mail : 2385783@hanmail.net

#### 김 민 지(Min-Ji Kim)

[정회원]



- 2008년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치학 석사)
- 2010년 2월 : 선문대학교 신학과(신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신학, 종교학, 가족상담

· E-Mail : kjinha@sunmoon.ac.kr